

순천시, 은퇴자·청년 도시 건설로 인구 늘린다

인구정책 재설정... 일자리·정원문화 등 5대 테마 전원도시 조성 귀농인 교육 플랫폼·정원 특화 거리·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순천시가 은퇴자가 꿈꾸는 전원도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건설에 집중한다.

순천시는 올해 1000명의 인구 전입을 목표로 정하고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도시 생존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재설정해 은퇴자와 청년이 사는 전원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 정책이 집중했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만혼 경향의 사회적·구조적 변화에 따라 출생률 증가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출생률을 높이고 더불어 인구유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구유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주거·일자리·돌봄·교육·정원문화 5대 테마로 은퇴자가 돌아오고 청년이 정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올해 1000명의 전입과 정착을 목표로 했다.

귀농·귀촌, 은퇴자 정착 터전 마련을 위해 귀농인 주택 리모델링, 귀농인의 집 조성, 빈집뱅크, 전원주택 살아가기 체험과 빈집소개 등 귀농귀촌 정보 제공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조성한다.

사람이 모이는 일자리 정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과 고졸자 고용촉진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창업 생

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 노년층까지 가정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 일자리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공립 노인일자리 건립, 공립 치매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를 설치·운영, 영유아 보육부터 고령자 돌봄까지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공동체 돌봄으로 가족돌봄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취미가 직업으로 연계되는 신중년 인생 재설계 은퇴교육과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창업농 육성 교육, 농업 마케팅 교육 등 귀농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 전역에 배움터가 있는 교육 플

랫폼을 구축한다.

생활 주변 곳곳에 골목정원, 도심정원, 정원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걸어서 15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축제, 공연·전시장이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유출을 막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안정을 갖춘 60세 이상 은퇴자 1000명이 전입해 정착한다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연간 300억 원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도권 등 타 지역 은퇴자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만19세~39세 내·외국인
16일까지 15명 내외 선발**

순천시는 오는 16일까지 내·외국인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2022 순천시 SNS 앰버서더'를 모집한다.

SNS 앰버서더는 순천의 시정,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장취재 및 기사를 통해 순천 곳곳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15명 내외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시민생활 및 안전'·'지역혁신 성장' 분야 10일~내달까지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와 '지역혁신 성장 분야'로 나눠서 접수한다.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는 시민복지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에 대한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해당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는 도시재생과 수소에너지,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맞춤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 공모하면 된다.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는 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안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우편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과), 이메일(lsjin1020@korea.kr), 팩스(061-659-5813)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축협 마트 주차장 수익금 기부

2020년 수해 리모델링 후 유료화...군에 247만원 건네

구례축협연합동조합(이하 구례축협)이 새로 문을 연 하나로마트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구례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구례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 247만원을 구례군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기부는 지난 2020년 구례 대홍수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조합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피해의 아픔을 딛고 새로 문을 열어 얻은 수익금을 내놓은 것이다. 구례축협 하나로마트는 매장 1000㎡(300평)전체가 이틀 동안 물에 잠겨 17억7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3개월의 복구 기간을 거쳐 그해 10월말 어렵게 개장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사진)은 수해 이전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혼잡이 발생하면서 수해 복구 후 재개장 하면서 유료로 전환했다. 마트 이용시 주차비는 1시간까지는 무료다. 주



말이나 인근에 있는 구례 재래시장이 열리는 3월과 8월에는 관광객들로 인해 만차를 이루고 있다.

유료 전환 후 주차관리가 잘 되면서 주차공간도 30여대 가량 늘어나 12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장이 됐다는데 마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창동 구례축협 조합장은 "유료로 전환해 조금 불편이 있으나 질서유지가 잘 이뤄져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받은 주차비는 전액을 이웃돕기성금으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물' 설 명절 매출 전년비 5배 경증

녹차미인보성쌀 등 5억4100만원 실적...올 목표액 20억 상향

보성군의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보성물'이 설 명절 기간 전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한 5억4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녹차미인보성쌀 2억3000만원을 비롯해 잡곡선물 세트 1억1000만원, 벌교꼬막 4000만원, 보성기위 3000만원, 보성을 담다 종합선물세트(사진) 2000만원 순으로 판매됐다.

다양한 보성군 특산품을 꾸러미 형식으로 만든 '보성을 담다' 500세트가 명절 전에 전량 완판 돼 주요 명절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는 약 1억2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재 '보성물' 회원 수는 5322명이며 128개 업체와 830개 품목이 입점해 있다. 신규회원 가입 시 5000원 적립금 지급 및 구매금액 5% 적립금 지급, 상품후기 및 댓글 작성 시 1000원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 목표 회원수는 8000명이며, 매출액 20억원 달성을 위해 다채로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고의 상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녹차수도 보성의 농·특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물은 지난해 목표액 6억원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9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판매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 민원서비스 눈에 띄네

곡성군이 외국인을 위한 안내 통역과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과 외국인들을 위해 민원실 등에 민원 안내 통역서비스와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곡성지역 등록 외국인은 451명이며 결혼이주여성 중 국내 국적을 취득한 주민까지 더하면 서비스 수혜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통역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다.

또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행정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 창구,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에 '민원 서식 QR코드'를 비치했다.

현재 여권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서, 전입 세대 열람 신청서 등 자주 이용하는 서식 6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신고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갑작스런 비에 우산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행복우산 대여 서비스도 지속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 민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키오스크 순번대기표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비접촉 전자 지문 등록 스키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2월호

2022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예술가로 산다는 것

위드 코로나 시대

- 코로나 위기 3년째 지속 예술 긴급지원 부족하다
- 코로나로 고립된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
- 밥이 안 되는 예술이지만 자부심으로 버틴다

특집

향로 오디세이

美路 味路

우주로 열린 생명의 땅
고흥의 숨결, 아름답다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2월 광주여행
#전통 #별밤
#시장 #별빛

우주를 향한 발걸음,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 예술의 섬' 연홍도의 '꽃정원' 축성
- 나로커피 220 & 예쁜식물 유자·석류
- 농부가 운영하는 유자엔카페

에향 초대석

K-컬처 가이드북 펴낸 중앙대 석좌교수
민병철
"한국문화의 핵심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해외문화기행 ③-독일의 문화수도 뮌헨
**뮌헨 슈바빙 거리에서
자연과 예술로 위로받다**

클릭, 문화현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박수근·봄을
기다리는 나목'전**

화제의 전시
'용맹, 친근, 익살' 그림으로 만나는 호랑이
임인년 맞아 다양한 호랑이 세화전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나를 위로하는 문학'
나와 세상의 이야기
담아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2022 신춘문예 당선자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에향이 만난 이 사람
FA 대어로 고향 돌아온 KIA타이거즈 타자, 나성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한국 사는 미 방송인, 마크 테토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볼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바흐 '카프리치오 BWV992'**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
조각가 김종영, '꽃대궐'서
미나리 대구탕 즐겨